

# 輓歌와 성경에서의 哀歌(Dirge)의 比較研究

金 權 昊\*

◇ 目 次 ◇

- I. 序言
- II. 輓歌의 文學性
- III. 輓歌의 主題
  - 1) 슬픔을 主題로 한 것
  - 2) 故人의 遺業을 主題로 한 것
  - 3) 歎息함을 主題로 한 것
  - 4) 기타
- IV. Dirge 혹은 Elegy
- V. 성경에서의 輓歌(Dirge)
  - 1) 死者에의 대한 頌德文(Eulogy of the dead)
  - 2) 슬픔(lamentation)
  - 3) 위로(consolation)
- VI. 結語

## I. 序 言

인간사에 큰 大事라면 人間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받고 태어나는 것과 성숙하여 異性끼리  
합하여 한 家庭을 이루는 일과 이世上을 떠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출생과 結婚은 모든  
사람들에 祝福가운데 되어지는 事件으로 기쁨의 일이지만 이 승을 하직하고 죽음은 영원한  
離別이므로 슬픔의 극이며 아쉬움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이 슬픔은 洋의 東西와 時의 古今을 막론하고 다를 수가 없으며 聖者와 凡人에게서도 區別이  
없다.

\*부교수, 국문학 전공

이 승에서 육신으로 헤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離別을 意味하는 것이므로 어떤 宗教의 特別한 敎理外에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순수한 本然的 모습 原色的인 感情自我의 原初의 心理를 드러내는 것으로 文字로 이 感情을 기록한다면 人間의 告白文學임에 틀림없다.

이런 告白文學인 輓歌(挽詞, 挽詩)를 더듬어 봄으로서 우리 조상들은 人生을 끝막는 시점에서 죽음을 어떻게 認識했으며 死者에 대한 感情은 어떠했는가를 알아보며 또한 聖經中の 여러 애가와(Dirge)와 比較해 봄으로 죽음에 대한 시각과 사후의 世界, 神에 관한 觀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輓歌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음인지 研究된 바가 없고 더구나 지금에 와서는 가정의례 준칙에 의하여 금지된 바 되어 輓歌의 現代의味를 發展시키지 못하였음이 조금 아쉽기도 하다.

輓歌는 漢文章으로 되어 있으나 現代의 감각을 살피서 우리의 國文으로 표현될 수도 있음직 하겠으나 법령으로 금지되어 完全히 歷史의 유물로 남게 되었다. 아직 이 輓歌에 대하여서는 研究도 全無하거나 一次的인 자료의 수집도 되지 못하여 自然的으로 이 研究書에는 많은 어려움과 限界가 없지 않음을 밝혀 둔다.

## II. 輓歌의 文學性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가장 원시적인 물음인 동시에 또한 완벽한 답을 할 수 없는 물음이다. 가장 광의의 意味의 文學論에서부터 가장 협의의 文學論에 이르기까지 여러 觀點이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文學論에 관한 百인이 百答인 文學정의가 다 옳을 수도 있으며 동시에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사실 〈문학〉이라는 그用語 自體부터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Science(科學)로서의 〈學〉이나 Art로서의 예술이나 를 論할 때 物理學, 天文學과 같은 性格으로서의 Science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輓歌의 文學性이라 할때 그 文學的 用語에 대하여 是非와 誤解를 막기위하여 그 정의에 대한 言及이 必要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원천적인 문제를 論하고자 함이 아니므로 그 정의에 관한 문제는 회피하기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 文學論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나름대로의 문학정의에는 일면은 강점이 있으나 그 이면은 약점이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많은 학자들의 문학정의를 소개하고 비판을 가하여 文學性을 著顯함이 그 方法이겠으나 여기서는 “文學性”의 用語에 對하여 이해만 돕고자 한다.

De Quincy는 文學을 “知識”과 “快樂”을 준다는 상식적인 양분론을 부정한다. 그는 Milton의 〈실락원〉(Lost paradise)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책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가르치는 冊에 속하는가? 흥미를 주는 冊에 속하는가? 만약 가르치는 冊에

속한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 詩 속에는 敎訓은 전혀 없다. 또 만약 흥미를 주는 冊에 속한다고 대답한다면 그는 타락한 사람이다. 人間性을 높이고 존엄하게 만드는데 어느 作品보다 더 공이 많은 詩를 타락한 인간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렇게 훼손할 수 있을까?<sup>1)</sup>

De Quincy는 이러한 常識論의 것에 해방되어 “힘”(power)이라는 새로운 概念을 도입하였다. 그래서 그는 “일체의 文學的인 것은 힘을 전달하고자 하며 일체의 非文學的인 것은 知識을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sup>2)</sup>

그러면 이 “힘”은 어떤 作用을 하는가? De Quincy는 文學에서의 힘은 “眞理에 對한 깊은 공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무한한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잠재적 능력을 운동시키고 확대 시켜주는 힘이라고 한다. 그것은 지구를 잊어버린 탄 世界로 올라가는 運動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3)</sup>

輓歌는 가식없는 인간의 감정을 토로한 것이므로 모든 이에게 깊은 공감을 느끼게 하고 文學의 思想性과 경향性과는 無關한 人間本연의 감정이므로 東洋과 西洋의 文學사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輓歌는 輓詩라고도 하며 훌륭한 文學性을 지니고 있다. 輓章은 唐書建寧王倓傳에 李泌이 지어서 선비들로 하여금 머리숙여 부르게 함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형식은 五言絶句, 七言絶句, 五言律詩, 七言律詩가 있으나 五言絶句와 五言律詩의 예는 아주 드물다.

## III. 輓歌의 主題

輓章은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지은 글로서 장사지낼 때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기를 만들어 상여 뒤를 따르게 하는 輓詞 輓詩라고도 한다. 특별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며 생의

- 1) De Quincy, Letters to a young man whose education has been neglected, London magazine March, 1823. 崔載瑞, 文學原論, 1957, pp.4-5 참조.
- 2) De Quincy Letters to a young man, The true Antithesis to knowledge, in this case, is not pleasure, but power. All that is literature seeks to communicate power; all, that is not literature, to communicate knowledge, p.441.
- 3) De Quincy, Essay on the pope's What you owe, is power, that is exercise and expansion to your own latent capacity of sympathy with the infinite, where every pulse and each seperate influx, is a step upwards—a step ascending as upon a Jacob's ladder from earth to mysterious altitudes above the earth. all the steps of knowledge, from first to last, carry you further on the same plane, but could never raise you one foot. above your ancient level of earth:where as, the way first step in power is a flight— is an ascending movement into another element where earth is forgotten.

허무등을 읊은 서정시의 일종으로 죽음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명상적 노래로 발전함을 볼 수 있다.

輓詩는 최후 離別의 노래이며 슬픔이 극한 상태에서의 글월이므로 슬픔을 읊은 것이거나 故人의 유업을 기리는 形이거나 人生은 無常하여 헛됨을 의식하거나 皮안의 世界에서 신선이 되어 이승에서 즐겁게 지내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는 형태의 主題를 지니고 있다.

1) 슬픔을 主題로 한 것

이 형태는 평소에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나 인물의 죽음을 애도한 輓詩이다.

我生君去此何事  
薤露聲聲不勝悲  
已矣形景永相隔  
淚灑秋風月滿枝

나는 살아 있고 그대는 갔으니  
이것이 웬일이나  
상여먹이는 소리소리 슬픔을 이기  
지 못하겠노라  
이제는 형상과 그림자도 영영 그  
만이구나  
자연 눈물이 솟아 가을 바람에  
뿌려지는데  
달빛만 나무가지에 휘영청 밝구나

終鮮此生兄弟宜  
那堪痛割至情悲  
靈床寂寞人琴古  
荒石切淒涼荆楸  
朋友招帳來執紼  
兒孫號哭去攀  
饑容杳漠幽冥隔  
痛哭秋原日夕時

이 世上 누구보다도 형제간에 우애  
하였으니  
어떻게 반쪽몸의 슬픔을 견디리오  
시신있는 자리는 적막하여 사람과  
거문고가 옛날 일이 되었고  
거친 달은 처량한데 아가배나무가  
시들었구나.  
벗들은 슬픔에 겨워 상여줄을 벗

들고  
자손들은 상여잡고 부르짖어 울도  
다.

아아 슬프다 이제는 다시 그 모  
습을 볼 수 없어  
가을 언덕 해 저물 때 슬픔 한  
층 더하구나.

證揚人生一夢場  
奈何敢忍送斯行  
父老子堤永訣地  
薤歌呼哭總양경

인간 세상이 꿈길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대를 만나지 못할까하니  
정말 꿈만 같으오  
남녀노소가 모두 나서서 영결하니  
상여소리 울음소리 눈물바다를 이  
루는구료.

慟哭 君靈淚不輕  
如何先我上帝京  
遙憶簫湘相寒夜月  
忍何雙雁咽鳴聲

그대의 영혼앞에 통곡하니 눈물이  
그치지 않네  
어찌하여 나보다도 먼저 저승길을  
앞선단 말인가  
아득한 소상강 고요한 달밤에 짝  
잃은 위기러기의  
슬피우는 소리를 차마 어찌 들으  
랴.

問君何事 作斯行  
謫降神仙 返玉京  
隣社親命 送此訣  
潛然揮淚 不堪情

그대는 어찌하여 이 길을 떠난단  
말인가.  
아마 자네가 본시 신선으로 잠시  
인간에 귀양왔다가

이제야 불러가는 모양일세 이웃동  
리 여러 친구들이  
모두나와 영결하는데 누구 아니  
눈물흘리며 슬퍼하지 않으리요.

歲星昨夜落江城  
畫角淒涼野馬驚  
喬木已成延世澤  
奇花還發振新聲  
清心不入重泉夢  
厚德應華千古名  
門外素車丹旌引  
登堂含淚訴離情

木星이 작야에 강성으로 떨어 졌  
으니  
빨피리 소리는 처량하고 새들은  
늘래도다  
교목은 조상의 여음으로 대대로  
국록을 먹었고  
자손들은 장차 영창하리라  
마음이 정직하고 고결한 고로 지  
하에서  
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후덕한  
인격은  
명성이 천추에 빛나리  
문밖의 영구차를 명정이 이끌어  
나가는 구나  
당에 올라 눈물을 머금고서 말없  
이 떠나는 정을 하소하노라.

少時修習 每同延  
晚境 戲譜 相老年  
無斷 忍然 仙化去  
送君揮淚 夕陽天

어려서는 한 자리에서 글을 읽었  
고  
늙어서는 서로 벗하였는데  
그렇게 홀로만이 신선이 되는가  
어느덧 해는 저문데 그대를 보내  
니 눈물만 흐르네

靑山橫比郭 白水遶東城

此地爲一別 孤蓬萬理征  
浮雲遊子意 落日故人情  
揮手白茲去 蕭蕭班馬鳴

청산은 북쪽을 가로막았고 백수는  
동성을 돌아 흐르는데  
여기서 한번 헤어지면 그대는 만  
리를 가리라  
부운은 그대의 뜻이요 지는 해는  
고인의 정이라  
손을 흔들어 이별을 하니 소소히  
말이 우네

八八年逝水同  
蓋門子姓莽暮功  
而今虛老修身士  
於世皆稻好命翁  
百里清綿愁落日  
一鄉執紼淚春風  
早從甥館深知德  
詩不能言意無窮

88세 세월이 유수와 같다  
집안에는 자손이 번창하여 복을  
입을 자 많도다  
일평생에 수신하는 선비가 헛되게  
늙었고  
세상에서는 다 운명을 알아 지키  
느니라  
장지가 멀어 해 저물까 근심하고  
지방의 벗들과 손님은 상여줄을  
잡고 춘풍에 눈물짓도다.  
내가 일찌기 사위가 되어 그 덕  
을 알지만  
글로는 능히 다 말하지 못하고  
의의만은 무궁하도다.

2) 故人的 遺業을 主題로 한것

이 형태는 주로 스승이나 實業家 政治家등 社會 名士가 죽었을 때의 輓歌이다.

仙鶴乘雲遽遽過  
千章酬世遺芳遠  
于呼其奈不留何

德業傳家庇蔭多  
落月光沈猶彷彿  
風流儒雅今安在  
荒山影幕轉嵯峨  
程市只殘白雲歌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구름위  
로 오르니 천백번 불리도  
돌아보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문장  
은 오래 세상에 전할 것이요  
선생님이 세상을 버리고 가시는  
광경은  
보름달이 밝은 바다위에 지는 듯  
하고 다음 순간은  
은은한 산모양이 방불하도다 아담  
한 그 용모 고상한 그 풍류를  
어디가서 뵈오리 다만 선생님을  
사모하는 이야기만 남으리라

吾輩嗟無福  
先生奄九泉  
道與死人去  
言空白世傳

우리들이 복이 없어서  
선생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도덕은 선생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으니  
천만년 전할 인간의 도리를 전하  
여 줄 사람이 그 누구일까

樞星一夜落東城  
地天慟悲水自鳴  
別雁津滄海濶  
慣心疊 泰山輕  
堂堂大義生前業  
烈烈精神死後名  
千秋怨恨憑誰問  
寂寞荒陵白日明

동역성의 큰 별이 하루밤 사이에  
떨어지니 하늘과 땅이 슬퍼하니  
애통하고 물도 스스로 목메여 운다  
이별의 눈물이 진진하여 넓고 슬

픈 바다를 이루니 분한 마음이 쌓  
이고 쌓여서 태산도 오히려 가볍네  
생전에 하시던 일은 대의가 당당  
하고

그 열열한 정신은 가신 후에 더  
이름이 높게 천추에 원한을 그 누  
구에게 물어야 할까  
적막하고 거치던 무덤에는 흰 구  
름만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簫簫落木動秋風  
槿域人民賴誰活  
今日哭君意不窮  
謳歌善政不忘中

가을 바람에 낙엽은 우수수 떨어  
지는데  
그대가 황천으로 떠난다니 슬픈  
마음 한이 없네  
한국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산  
단 말이요  
그대의 착한 정사만을 잊지 못하  
고 있던 증인네

陽霍大名聞古今  
君於斯術亦浮沈  
如何住作黃泉客  
使我悽愴向古林

옛날에 양곽이란 대실업가의 이름  
입니다.  
그 위대한 이름은 고금에 빛나더니  
별안간 황천객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혼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3) 섭섭함을 主題로 한것

以酒爲生 以酒死  
生時豪傑 死時仙  
黃泉今日 平安去  
應入竹林 會七賢

술로서 살다가 술로서 죽으니  
살아서는 호걸이요 죽어서는 신선  
이라  
이제 태평한 마음으로 떠나시는  
그대는  
아마도 황천에 가서 일곱현인을  
만나고자 함인가 보네

先生昨夜 辭塵緣  
國失著龜 鄉失賢  
後人從此 依何處  
月滿空山 星滿天

선생께서 이 승을 버리시니  
후학들은 큰 거울을 잃었소이다  
이제 누구를 본받아 살아 가리까  
쓸쓸한 달빛만 가득하오

屈指論交 六十年  
酒談幾度 共燈前  
斑毛失此 知心友  
欲裂心肝 涕泣然

60평생에 다시없는 친구로서  
밤세워 술마시고  
노래함이 몇번이던가  
친구여 이 늙은 몸의 심정은  
찢어지는 듯하고  
눈물은 견잡을 수 없이 흐르네

青雲龍閣 顯君忠  
爲國謀猫 卓越功  
上帝應召 住治政  
飄然駕鶴 一隅空

그대의 험험한 공훈은  
용화각에 올랐으니  
청운을 이루었다 하리라  
이제 상제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표표히 떠나니  
세상은 온통 빈 것만 같으오

4) 기타

瀟湘何事 第閑回

水碧沙明 兩岸苔  
二十吾絃 彈夜月  
不勝清怨 却飛來

물은 푸르고 모래는 고와 풍량이  
아름다운데  
무슨 일로 하염없이 돌아 가는가  
이십 오현을 골라 좋은 노래를  
탄다면  
못다한 한에 겨워 다시 돌아 올  
꺼나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다는 허무감이 도시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武陵溪國 駐扁舟  
溪水隨君 向北流  
行到荆門 上三峽  
莫將孤月 對猿愁

그대 무릉도원에 이르거든  
잠깐 멈추었다가 가소  
흐르는 물도 그대같이 북방으로  
가네  
가다가 형문에 이르러도  
외로운 달빛 구슬픈 소리에 상심  
말게

저승길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좋은 경치 구경하며 쉬어쉬어 가라는 뜻으로 너무 쉽게  
홀쩍 저승으로 가시어 우리의 정을 끊지는 말고 저승길이 멀다고, 혹은 우리를 잊지 못하여  
저승길 가는 길도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라는 자연섭리에 의탁하는 섭리이다.

拊我曾猶子  
追隨部杖藜  
十起憂常切  
七賢名共齊  
蓬島松門寂  
黃山化逕迷  
攀轡哀淚灑  
邱壠曉風淒

나를 어루만지기 자식같이 하고  
나도 또한 따라 모시고 다녀었다  
나 병 앓을 때 얼마나 걱정하셨  
으며

죽림의 칠현들과 같이 숙질간에  
 정의가 두터웠었고  
 명성도 같이 있었느니라  
 이제는 가셨으니 봉래산에 송문만  
 적막하고  
 황산곡 사잇길이 막아서 회미하겠  
 도다.  
 상여를 붙들고 슬픈 눈물 뿌렸으니  
 숙부모신 산소에는 새벽바람이 차  
 감도다.

伯叔父 輓章인데 父母처럼 사랑해주셨고 살아생전 귀여워해주셨는데 죽어서는 그 무덤  
 위에 쓸쓸한 바람만이 부는 인생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다.

#### IV. Dirge 혹은 Elegy.

원래 漢語에서는 靈樞를 끌고 갈 때 부르는 장송의 노래로써 끝내는 죽은 사람을 곡하는  
 노래까지로 의미가 넓어졌다 西洋에서는 Latin語 성서인 Vulgate 의 “Dirge, Domine, Deus,  
 Meus, in Conspectu tuo Viam meam.” (야훼여!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사오니 이 몸에서 죄를  
 벗겨 주시고 당신길을 내 앞에 터 주소서)의 첫머리에서 유래되었다. 이 귀절은 원래 죽은  
 사람을 조문하는 기도문의 한 귀절이었으나 매장식 혹은 추도회때 부르는 애도의 노래로  
 일컫는 말이 되었다. 또한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노래를 뜻하기도 한다.

적대심으로 날카롭게 감시하며 성도의 망하는 것을 보려고 것처럼 독한 시선으로 보는  
 자들로부터 이 시인은 저들의 기대가 실패하기 위하여 자기를 주님의 義, 곧 구원하시는  
 義를 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 길을 밝히 보여 주시기를 기구한다. 곧 그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그것을 알게도 해주시고 행할 수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청원한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기구하였다.

그리하여 성경의 哀歌는 슬픔만을 말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死者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떠난 생활은 얼마나 허망된  
 생활인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겸손한 회개로 하나님에 대한 선한  
 기억으로 위로의 哀歌로 되어 있다.

#### V. 성경에서의 輓歌(Dirge)

성경에서의 만가는 내용이 주로 탄식과 찬양이 그 주요 내용으로 되어있다.

전도서는 지혜문학(Wisdom literature)으로 꼽히는 作品이다.

그 冊의 저자 Solomon은 그의 시대에 世界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하였던 王으로  
 지혜, 재산, 文學的 업적으로도 유명하였다.

Solomon은 世上 만사가 다 때가 있어 죽을 때가 되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  
 다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  
 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  
 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으면 돌  
 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안는 일을 멀  
 리 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  
 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  
 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하늘 아래서 이 때를 거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지혜자 Solomon은 인생 만년에 만사가  
 제 때가 있음을 알고 과거의 부귀 영화 만세 무궁토록 살려는 노력이 다 헛된 것임을 알았다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죽음 그 자체는 때가 되면 찾아오는 자연현상으로 슬픔으로나 기쁨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다.

성경에서의 애가 형식은 크게 보아 3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1) 死者의 대한 송덕문 (Eulogy of the dead)

사자에 대한 생전의 유업을 기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랑거리로 사자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랑거리로 사자를 칭송하며 애도의 자리에서 그의 장점만을 드러내는 형식으로 우리의 輓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代表的 Dirge 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吊歌이다

이스라엘아 ——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잔파하지 말지  
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 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바 됴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됴이  
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은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애가를 읊은 다윗은 여기서 죽은 사울의 모든 과오를 용서하고 그의 장점만을 말하여 <영광>으로 표현한다.

죽은자를 吊喪 하는 자리에서는 생전의 허물을 덮어두고 장점만을 드러내는 것이 예의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모두 이스라엘의 자랑거리로 말하였다.

2) 슬픔 (lamentation)

네 어미는 무엇이나  
암사자로다  
그녀는  
어린 사자를 키워서



그것이 사람을 먹도록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정으로 사자를 잡아  
예굽으로 갔도다

그녀는 낙망하여  
새끼 사자를 어미 되게 하더니  
또 사람을 먹도록 하는구나

왕실도 허물어 지고  
성읍도 무너지고  
그 우는 소리만 천지에 가득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 듣기 싫어  
그물로 사로잡아  
바벨론왕께 보냈도다

피의 어머니는  
물가의 포도나무 같아서  
가지도  
열매도  
권세자의 흠처럼  
하려하구나

가지도  
분노에 마르고  
동풍에 마치  
불에 타듯 말랐으니  
광야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  
심성한 가지는 하나도 없구나

에스겔 19:2-14 (필자가 원 뜻을 살려 가필한 것임)

이것은 다윗의 왕통을 계승하였던 상속자들인 이스라엘 방백-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들에 대한 애곡이다.

이 노래는 對神의 고백 文學으로서 神을 떠난 세상만사는 다 허무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사공이 너를 바다에 이르게 하니  
동풍이 너를 파선케 했도다

내가 가진것과  
너와 더불어 지내던 자는  
수중에 빠지리라

네 선장의 부르짖음이  
바다와 파도가 흔들고나  
그러나  
너를 위하여 소복을 입은 자의  
통곡 소리만 들릴뿐이리라.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리라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자가 누굴까

옛날의 풍요로움은  
모든 왕을 부요케 했는데  
이제는 바다에 빠지는구나

섬의 거민들도 놀리고  
왕들도 두려워 하는구나  
우리와 더불어 무역하던 자들은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여 경계하니  
너는 영원히 다시 서지 못하리라

에스겔 27:26-36 (필자가 원 뜻을 살려 가필한 것임)

이 애가는 화려했던 두로의 돌이킬수 없는 멸망을 노래한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교만과 참 삶의 의미를 모르는 우둔한 자들의 생활은  
다 무의미 함을 나타내고 있다.

너는 슬기가 넘치고 더할 나위없  
이 멋이 있어  
정밀하게 판 옥새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홍옥수, 황옥, 백수정, 감람석, 얼룩  
마노, 백옥, 청옥, 홍옥, 취옥  
온갖 보석들로 단장했었다.  
내가 생겨 나던 날 이미 금패물  
과 보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나는 빛나는 거품을 너에게 붙여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의 산에 두어

불붙은 돌들 사이를 거닐게 하였  
다.

너는 생겨 나던 날부터  
하는 일이 다 발전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너에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너는 정신없이 무역을 하다가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넘치게  
저질렀다. 그리하여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내었다.

보호자 거룩은 불붙은 돌들 사이  
에서

너를 사라지게 하였다  
너는 스스로 잘났다 하여 거만해  
졌다.

영화를 누리다가 슬기를 쏟아 버  
렸다. 그리하여

나는 너를 세상으로 쫓아내어  
세상 왕들의 구경거리를 만들었다  
네가 목구멍까지 찬 악과 불공평

한 무역으로

너의 성소들을 더럽혔으므로  
너에게서 나온 불로 너를 삼키게  
하리니.

너는 땅위에 잣더미로 남아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리라.

못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아는  
사람은 모두

네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라  
너는 줄지에 망하여 아주 없어지

고 말리라

에스겔 28:12-19

이 애가는 두로왕의 죽음을 애도하여 읊은 것이다 하나님께 공의를 누시하고 교만한 자의  
최후는 어떠한가를 보여 주고 있다.

네가 만방의 사자 같더니 망하고  
말았구나

너는 강물에서 꿈틀 꿈틀 네 발  
로 물을 치며

강물을 흐리던 물 속의 악어 같  
았다.

주 야훼가 말한다  
못 민족이 모인 가운데서  
내가 그물을 펴서 너에게 씌우리  
니

민족들이 내가 씌운 그 망으로  
너를 끌어 올리리라.

내가 너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별판에 버리면

하늘의 온갖 새가 네 위에 내려  
앉고

온갖 들짐승이 너를 배부르게 뜯  
어 먹으리라.

너의 살코기를 산에 내다 버리면  
네 몸에서 나온 구더기가 골짜기  
마다 들끓으리라

송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추기물이  
땅을 적시고

너에게서 흘러 나오는 피로 산들  
은 물들며

골짜기마다 피로 내를 이루리라  
네 빛을 끄는 날

나는 하늘을 가리우고  
별들을 칭칭하게 만들리라

해를 구름으로 덮고  
달고 빛을 잃게 하리라

너를 비추던 천체들을 모두 침침  
하게 만들리니.

네 국토는 온통 캄캄해지리라

에스겔 32:1-8

에집트의 멸망을 에집트왕 바로에게 지어 읊게 한 애가 이다.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은  
다 허망한 것임을 알게 하는 조가이다.

아래의 예레미야의 애가는 더욱 유명하다.

아. 그렇듯 봄비던 도성이  
이렇게 쓸쓸해지다니  
예전에는 천하를 시녀처럼 거느리

더니.

이제는 과부 신세가 되었구나  
 열방이 여왕처럼 우러르더니  
 이제는 계집종 신세가 되었구나  
 밤만 되면 서러워 목놓아 울고  
 흐르는 눈물은 끝이 없구나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들조차 위로  
 하여 주지 않고  
 벗들마저 원수가 되어 등돌리는구  
 나

유다는 육보면서 살아 오다가  
 끝내 잡혀 가 종살이하게 되었구나.  
 이 나라 저 나라에 얽혀 살자면  
 어디인들 마음 붙일 곳이 있으랴  
 이리저리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뒤틀미를 잡힌 풀이 되었구나  
 시온으로 오가는 길목에는 순례자  
 의 발길이 끊어지고  
 들리는 것은 통곡소리뿐이구나  
 모든 성문은 돌더미로 주저앉고,  
 사제들 입에서는 신음소리 뿐이요,  
 처녀들 입에서는 한숨소리 뿐이구나.  
 아,시온이 이렇게도 처량하게 되

다니

야훼께 거스르기만 하던 시온  
 정녕 죄를 받고 말았구나  
 시온의 원수들이 득세하여  
 이제 닥치는 대로 어린것들마저  
 끌어 가는구나  
 수도 시온의 영화는 어디로 갔는가.  
 지도자들은 목장을 잃은 염소처럼

떠돌며

원수에게 맥없이 끌려 가고 말았

구나.

예루살렘이 어찌 잊을 것인가?  
 집없이 떠돌며 짓밟히어 나날을  
 백성이 원수의 손아귀에 들었는데도.  
 아무도 도와 줄 이 없이  
 적은 좋아라고 비웃기만 하였다  
 예루살렘이 그토록 죄를 짓던 예루살렘이  
 끝내 개집처럼 되었구나

일찌기 떠받들던 자들도

이젠 그 별거승이 모습이 역겨워  
 눈살을 찡그리고  
 예루살렘은 한숨지으며 절절매는  
 구나.

치맛자락에 묻은 몸엣것이 부끄러워  
 “이렇게 될 줄이야!” 하고 제  
 자리에 주저앉아도  
 위로해 주는 이 하나 없구나.

<애가> 1:1-9

### 3) 위로 (Consolation)

그러나 아래의 예레미야의 애가는 위로의 애가이다. 하나님에 대한 선한 기억과 추억을  
 말하며 유다의 파멸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된다.

주 야훼의 사랑 다함 없고  
 그 자비 가실 줄 몰라라  
 그 사랑 그 자비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 그지없어라  
 “나의 뭇은 곧 야훼시라” 속으

로 다짐하며

이 몸은 주를 기다리리라.  
 야훼께서는 당신을 바라며 찾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라  
 야훼께서 건져 주시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이다.

끓어서 멩에를 매는 것이 좋은  
 일이라.

야훼께서 메우신 것이니 잠자코  
 있어라.

입을 땅에 대고 있어라  
 행여 앞날이 트일지 아느냐?  
 누가 때리거든 뺨을 돌려 대어라  
 누가 욕하거든 달게 받아라  
 주께서는 마냥 내버려 두시지를  
 양으신다.

주께서는 사랑이 그지없으시어

심하게 벌하시다가도 불쌍히 여기  
신다.

사람이 미워서 괴롭히거나  
벌하지는 않으신다  
남의 나라에서 붙잡아 온 포로라고  
마구 짓밟거나  
그지없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남의 인권을 짓밟거나  
억울한 재판을 하는 것을  
주께서 보지 못하시겠느냐?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주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신 일이  
되겠느냐?

좋은 일이건 궂은 일이건  
그지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되는 일이 없다.

제가 잘못해 놓고도  
목숨이 붙어 있다고 넘두리하나?  
우리 모두 살아 온 길을 돌이켜 보고  
야훼께 돌아 가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손들고 마음 바쳐 기도드리자

<애가> 3:22-41

## 結 語

만장은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지은 글로써 장사지낼 때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기를  
만들어 상여뒀을 따르게 하였다.

그러나 Dirge는 인간의 죽음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것으로 슬픈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죽음을 슬픔으로 인식했으며 죽음에 대한 宗教的 信仰으로  
地上에서의 슬픔보다 來世에 누리는 행복으로 슬픔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만장(輓章)에 쓰여지는 애도의 詩는 神(하나님)의 意識이 없기 때문에  
주로 故人의 유업을 기리는 형과 슬픔을 읊은 형식과 죽음을 통하여 人生이 無常함과 皮安의  
世界에서 神仙이 되어 현세의 고통과 현세에 이루지 못한 한이 된 것들을 즐기라는 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애가는 주로 對神的 告白文學으로서 神을 떠난 세상만사는 허무한  
것임을 나타내고 또한 응당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市民으로서의 確信과 피조물로서의 神一人  
관계는 不變 이기 때문에 神仙이 되라는 송축의 노래는 없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하여 저주 받은 슬픈 生은 겸손한 회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위로의 애가로 되어 있다

이것은 神 앞에서의 人間임을 자인 함과 神의 존재를 지각하지 못한 人生觀, 來世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輓章의 수요가 많을수록 社會名士라 일컬어 졌다. 그러나 近來에는  
生活의 형태가 바뀌고 모든 儀式이 간편해짐에 따라 상여군에 의하여 시신이 운구되어지지  
않고 장의식은 完全히 바뀌고 말았다. 장의식이 기업화 됨에 따라 장의식을 행하는 업체가  
대행함으로 형식적인 절차는 거추장스러워 졌다.

또한 가정의례 준칙으로 전통적 관습적 儀式이 사라짐으로 고유한 우리의 것들이 歷史의  
유물化 되어버렸다.

법률로 금지된 바이지만 발전할 수 있었다면 現今의 生活에 맞는 형태의 輓章으로 변형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그 내용도 어려운 한문이 아닌 한글체의 文章으로 발  
전되었으리라 믿어져 文學的인 立場에서 애가를 잃은 서운함도 있다